



주 일 가 정 예 배 순 서 지

목 상 기 도 _____ 다 같 이
신 앙 고 백 _____ 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찬 송 가 4 4 6 장 (주 음 성 외 에 는) ——— 다 같 이

1.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 주안에 기쁨누림으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यो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리로다

대 표 기 도 _____ 담 당 자

성 경 봉 독 _____ 시편 109편 1-31절 _____ 다 같 이

- 생명수샘 8월 16일(주일) 생명수샘 말씀 -

설 교 ————— 나는 기도할 뿐이라 ————— 인 도 자
(뒷 면 참 조)

합 심 기 도 _____ 다 같 이

주 기 도 문 _____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기도할 뿐이라 / 시109:1-31

시편 109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원수에 대한 저주와 함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과 마치 대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에서 시인은 자신의 악한 마음으로 무작정 원수를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근거하여 자신이 당한 고통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원수에게 임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먼저 1절에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며 잠잠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늘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기쁜 나머지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하나님이 잠잠하는 것 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향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자신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수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악한 말과 거짓말, 속임수로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다윗을 공격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랑으로 대우했는데 오히려 대적합니다. 그래서 더욱 억울했을 것입니다(2-4절).

살다보면 이런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남들의 비방과 악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또 오해해서 말로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절 후반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사실 이런 비방을 직접 당해보지 않고 이런 말을 했다면 큰 위로가 되질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했을까요?

다윗은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악인에 대한 신랄한 저주의 내용(6-20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주의 내용을 통해서는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는 심는대로 거두게 해주시라는 성경의 원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20절). 악인은 악(惡)을 심었기 때문에 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선(善)만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현재 고통을 토로하며 구원해주시라고 간구합니다(21-27절).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악인들에게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했습니다.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날 것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28절에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기도로 마무리 합니다. 시인은 믿음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저주의 언어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오히려 주님의 복으로 축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저주는 소용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의인에게 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즐거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